

연예

14

2019년 4월 4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한국영화 100년 '최고의 작품' | 2 1960년작 김기영의 '하녀'

“하녀”는 전 세계가 봐야 할 위대한 영화

- '하녀' 복원 주도한 할리우드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

1919년 10월27일 '의리적 구토' 이후 시작된 한국영화 100년의 역사는 수많은 걸작을 관객에게 선사해 왔다. 당대 대중의 감성을 어루만지며 진한 감동과 웃음과 눈물을 안겨 준 대표적 작품이 여기 있다. 창간 11주년을 맞은 스포츠동아가 감독, 제작자, 평론가 등 100인의 영화 전문가들에게 한국영화 100년, 그 최고의 작품을 꼽아 달라고 요청해 얻은 답변이기도 하다. 그 걸작들을 시대순으로 소개한다.



1960년 개봉한 영화 '하녀'는 한국영화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은 '하녀'의 한 장면.

사진제공 | 한국문예영화사

연예뉴스 HOT 3

전유성, 5·6월 데뷔 50주년 공연

개그맨 전유성이 데뷔 50주년 소감을 밝혔다. 전유성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호텔에서 공연 '데뷔 50주년 만에 제일 큰 무대, 전유성의 쏘쏘쇼:사실은 떨려요' 제작발표회를 열고 "많이 떨고 있다"고 말했다. 1969년 '후라이보이의 쇼쇼쇼'의 작가로 데뷔한 그는 스타급 후배 연예인들이 마련한 자신의 데뷔 50주년 기념 공연을 앞두고 있다. 공연은 5월과 6월 서울과 전주 등에서 열린다.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에 '나폴리'

5월 막을 올리는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클라우디오 조반네시 감독의 '나폴리:작은 강들의 도시'가 선정됐다. 전주국제영화제 이종직 집행위원장 등은 3일 오후 개막작 등 올해 영화제 상영작을 발표했다. 폐막작은 '스틴'으로, 영화제 측은 주연배우 제이미 벨을 초청할 계획을 밝혔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주제로 5월2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이국종 교수 에세이가 드라마로...

중증외상 치료의 권위자인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의 에세이가 드라마로 만들어진 것이다.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은 3일 "이 교수의 에세이 '골든아워'의 영상화 판권 계약을 완료했다. 2020년 상반기 방송을 목표로 드라마 제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에세이는 이국종 교수와 중증외상센터 의료팀이 경험한 병원의 일상과 생사의 최전선에 놓인 환자들의 사연을 다루고 있다.

1960년대 한국영화 가운데 '하녀'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여전히, 널리 그리고 자주 회자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평단을 중심으로 재발견되면서 한국영화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덕분에 2010년 복원된 버전이 재개봉해 젊은 관객에게 새롭게 소개되기도 했다. 같은 해 임상수 감독이 리메이크해 전도연과 이정재 주연으로 재탄생하며 새삼 화제를 모았다.

한국영화 모더니즘의 선구자로 꼽히는 김기영 감독이 1960년 내놓은 '하녀'는 당대 한국사회의 계급계층 문제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인간의 노골적인 욕망과 불안 심리까지 접근한 작품이다. 이를 스텔러 장르로 완성하며 또 다른 시대를 열었다.

영화는 한 중산층 가정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정부의 기묘한 동거를 큰 줄기로 삼는다. 방직공장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작곡가 동식(김진규)이 가정부(이은심)와 맺는 불의의 관계, 그 사이에 놓인 가족들과 또 다른 인물들의 상황을 피기하게 그린 작품이다.

남동철 부산국제영화제 수석프로그램머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개성의 영화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영화"라는 설명과 함께 '하녀'를 한국영화 100년을 상징할 만한 작품으로 꼽았다. "장르적으로는 스텔러로 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추구한 완벽한 이야기 구조, 배우들의 연기가 복합적으로 조화된 작품"이라는 평도 덧붙였다.

실험정신 투철한 고 김기영 감독 계층문제와 욕망·불안심리 그려 유실필름 복원...2008년 칸 상영 2010년엔 임상수 감독 리메이크

성적인 욕망과 뒤따르는 살인까지 기괴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하녀'는 실화에서 모티프를 얻은 작품이다. 1960년 11월9일자 동아일보는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줄거리 운반에 기를 쓰지 않고 인간의 심리에 카메라를 들여다 댄 실험정신을 저버릴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항상 이색적인 소재를 찾는 김기영 감독의 '식성'을 짐작케 하는 작품으로, 성격묘사가 거칠어 리얼리티를 찾는다면 불만스러울 수 있다"고도 썼다.

'하녀'는 1950년대 후반부터 급격화한 한국 자본주의 발전, 그 안에서 살아간 여성의 문제와도 떼어내 볼 수 없다. 김선영 평론가는 "사회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여성 캐릭터의 불안과 집착, 당대 가족제도와 계층 문제를 다층적으로 연계시킨 수작"이라며 "영화를 장악하는 여주인공의 존재감, 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미장센까지 탁월하다"고 평했다.



영화 '하녀'를 연출한 고 김기영 감독 사진제공 | 한국문예영화사

'하녀'는 한때 일부 필름이 유실되는 등 우려곡절을 겪었다. '하녀'의 원본 복원을 주도한 인물로 세계영화재단을 이끄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다. "전 세계가 봐야 할 위대한 영화"라고 '하녀'를 설명한 그는 재단을 통해 필름 복원을 주도했고, 2008년 칸 국제영화제 '칸 클래식' 부문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녀'의 주제와 스타일은 1971년 '하녀'와 1972년 '총녀'로 이어졌다. 김기영 감독이 설계한 이 '여성 연작'은 2019년 현재 한국영화가 반추해 봐도 실험적이고 도전적이다.

'하녀'와 '총녀'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은 지난해 CGV아트하우스의 '김기영관' 개관을 기념한 자리에서 감독과 작업을 이렇게 회고했다.

"김기영 감독의 영화는 지금 봐도 충격적인데 여러 규제가 심한 1970년대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 예술가는 앞서 가야 한다. 그는 정말 천재였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내 소중한 남자를 위한 FOR MY DEAR MAN BLACK FACE 블랙페이스 고품성 팬티

센스와 패션을 아는 남성들이 선택하는 고품성 위생팬티

블랙페이스프리미엄형 고급팬티, 3D 입체설계 팬티로 편안한 하루를 즐겨보세요.

남자팬티 절대 답답해선 안된다!

특허받은 3D 입체설계 구조

고급원단을 사용하여 신축성이 좋고 우수한 통기성과 빠른 말 흡수로 악취발생을 억제해 줍니다. 남성 중요부위를 분리하여 답답하거나 불편하지 않아 입는 동안 상쾌한 기분을 유지시켜 주는 고품성 팬티입니다.

초특가 할인행사 5장 39,800원

사이즈 : 95, 100, 105

※ 무조건 랜덤 5장 발송 ※

건강과, 위생을 생각한 블랙페이스 고품성 팬티, 통풍 신축성 땀흡수 기능고급원단으로 제작, 삶의 질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카드결제가능 24시간 주문가능 1899-1898

계좌 : 농협) 355-0057-3479-43 한국뉴미디어 전국 우체국배송 3,000원 소비자 부담 / 카드가능

call mountain 새털같은 가벼움! 끈을 묶고 푸는 번거로움이 없는 간편함!

콜마운틴 완전방수기능성워킹화 파격할인!!

2019년 최신행 초경량 워킹화 동산화를 파격가로 만나보세요!

2019년 최신행 초경량 워킹화 소비자파격가! 198,000원 택배비무료 카드무이자

[24시간 주문가능 / 5개월까지 무이자할부]

국내생산 스프링 공학이 적용된 기능성 워킹화, 발에 가해지는 충격흡수 및 분산에 탁월, 발, 다리, 무릎, 허리 통증 스프링 워킹화가 해결해줍니다.

특허받은 MTC공법으로 신발 밑창에 스프링이 들어있어 일반 워킹화, 운동화보다 편안합니다.

천연소기죽과 메쉬원단 사용으로 더욱 부드럽고 오래신을수 있습니다.

워킹화 신발 내부구조

①스프링워킹화 188,000원

②동산화워킹화

③스프링 끈

※ 남녀공용 사이즈 :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mm

카드결제가능 24시간 주문가능 1899-1898

입금계좌 : 농협) 355-0057-3479-43 한국뉴미디어 전국 무료배송 / 신용,체크카드 2개월~5개월 무이자 가능